

성악가의 성종(Voice Classification) 구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음성언어의학연구소

남도현* · 백재운 · 최홍식

목 적 :

성종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성악교사의 오랜 경험에 의하여 성역과 음색으로 성종을 구분하는데 이러한 경험에 의한 판단은 때때로 성종을 잘못 판단하여 발성적인 결함의 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전문적인 성악가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성종구분방법을 알고자 한다.

방 법 :

성악가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적인 성종의 구분방법과 국 내외의 소개되어있는 문헌과 Pub Med 검색을 통한 외국논문을 찾아 성종구분과 관련된 논문을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결 과 :

성종을 구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남녀 모두 1) 성역(vocal range), 음색(vocal timbre), 2) 습관적 말소리의 기본주파수(habitual FO : fundamental frequency), 3) 성도(Vocal tract)의 길이, 4) 윤상연골(cricoid cartilage)에서 갑상패임(thyroid notch)까지의 길이, 5) 성대의 길이 등이 있으며, 6) 남성의 경우에는 passaggio하는 음의 높이와도 관련이 있다.

결 론 :

성악교사들이 경험적 판단에 의한 성종의 판단은 성역과 음색 습관적 말소리의 높이 등과 오랜 발성교육경험에 의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본주파수의 측정, 성도의 길이, 후두부의 크기, 성대의 두께와 길이, passaggio하는 음의 높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또한 음성기기의 도움을 받거나 음성전문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종을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라 생각된다.